

-(느)ㄴ다고 하다

~다고 하다 — 평서문의 간접 인용

한국어의 네 가지 간접 인용 형태 중 첫 번째입니다. 원래 말한 사람이 어떤 높임 수준을 썼든 인용할 때는 기본형(해라체)으로 바꾼 뒤 고 하다는 붙입니다.

■ 결합 방법

단어 종류	형태	예
동사, 모음 어간	-ㄴ다고 하다	가다 → 간다고 해요
동사, 자음 어간	-는다고 하다	먹다 → 먹는다고 해요
동사, ㄹ 어간	ㄹ 탈락	만들다 → 만든다고 해요
형용사	-다고 하다	좋다 → 좋다고 해요
이다	-(이)라고 하다	학생이라고 해요
과거	-았/었다고 하다	갔다고 해요
구어 축약	-대요	간대요 / 좋대요

■ 언제 쓰나요

규칙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문장을 해라체로 바꿉니다. 동사는 -ㄴ다/-는다를 붙이고, 형용사는 기본형 그대로 두며, 이다는 -(이)라가 됩니다. 그 다음 고 하다는 붙입니다.

그래서 가요는 간다고 해요, 좋아요는 좋다고 해요, 학생이에요는 학생이라고 해요.가 됩니다. 마지막 것이 이 계열의 불규칙형이며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원래 말의 높임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친구가 ‘가’라고 했든 ‘갑니다’라고 했든 간다고 했어요로 전합니다. 이제 높임은 하단에 붙여, 지금 이야기하는 상대를 향하게 됩니다.

구어에서는 줄어듭니다. 현재는 -대요, 과거는 -았/었대요입니다. 간대요, 좋대요, 갔대요.

■ 예문

- 1 친구가 내일 부산에 간다고 했어요.
- 2 동생이 배가 고프다고 해요.
- 3 그 사람이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 4 어머니가 김치를 직접 만든다고 하셨어요.
- 5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했어요.
- 6 그 영화 정말 재미있대요.

■ 비교

-(이)라고 하다

1급에서 배운 명사 쪽 용법입니다. 그것은 사물의 이름을 말하고, 이것은 문장 전체를 인용합니다. 이다에 대해 같은 라고 형태를 쓰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해요는 ‘학생이라고 부른다’와 ‘학생이라고 말했다’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김치라고 해요. (김치라고 부른다) / 학생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학생이라고 말했다)

-(으)라고 하다

평서문은 -(느)ㄴ다고, 명령문은 -(으)라고를 씁니다. 둘을 혼동하면 누군가가 한 말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내린 명령을 전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간다고 했어요. (간다고 말했다) / 가라고 했어요. (나에게 가라고 했다)

직접 인용

말을 그대로 옮길 때는 원래 문장을 그대로 두고 -라고 하다는 씁니다. 이 경우 말한 사람의 높임 수준이 유지됩니다.

“내일 갈게요”라고 했어요. (직접 인용) / 내일 간다고 했어요. (간접 인용)

■ 주의

✗ 동생이 배가 고프는다고 해요.

○ 동생이 배가 고프다고 해요.

고프다는 형용사이므로 기본형을 유지합니다. -ㄴ다/-는다는 동사에만 붙습니다.

✗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이다는 여기서 불규칙으로 -이다고가 아니라 -(이)라고가 됩니다. 간접 인용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 어머니가 김치를 만들는다고 하셨어요.

○ 어머니가 김치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ㄹ로 끝나는 어간은 해라체 평서형과 똑같이 -ㄴ다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